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의 요인

Causes of Elementary 6 Graders'
Negative Affec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강 연 정

2016년 8월

석사학위논문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태도의 요인

Causes of Elementary 6 Graders'
Negative Affec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강 연 정

2016년 8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의 요인

Causes of Elementary 6 Graders'
Negative Affec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지도교수 김 익 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강 연 정


2016년 5월

강 연 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고 경 희 

심사위원 홍 경 선 

심사위원 김 국 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6년 6월

목 차

국문 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	5
2. 영어교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태도	6
III. 연구 방법	14
1. 조사 대상	15
2. 연구 절차	15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1
1. 양적 연구	22
2. 양적 연구(2차 설문)	29
3. 질적 연구(면담)	31
V. 결론 및 제언	51
참고 문헌	54
ABSTRACT	55

표 목 차

<표 1> 면담 참여자 목록	17
<표 2> 양적연구를 위한 1차 설문조사지	18
<표 3> 2차 설문조사지	20
<표 4>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 비교	22
<표 5>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분석	23
<표 6> 영어 학습에 대한 자아효능감 분석	25
<표 7> 불안 심리 분석	27
<표 8> 영어공부에 흥미가 없는 이유	29
<표 9>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떨리는 이유	30

그림 목 차

[그림 1]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 비교 그래프	22
----------------------------------	----

국 문 초 록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교과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의 요인

강 연 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영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익 상

이 연구의 목적은 영어교과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의적 태도의 양상을 살펴 보고, 정의적 태도가 저하되는 원인을 살펴 초등학생의 정의적 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측면이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어에 대한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정의적측면(흥미, 동기, 자아효능감, 불안 심리)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조사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의 양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더불어 정의적 측면이 낮게 나온 학생과 높게 나온 학생들 중 몇 명을 선정한 후 면담을 실시하여 정의적 측면이 저하된 요인을 조사하였다. 나아가 향후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의적 측면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어수업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정의적 태도를 흥미와 자신감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유형별 원인을 파악해 보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영어교과에 대해 초등학생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정의적 태도가 저하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원인들이 서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정의적 태도가 갈수록 저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원인은 교육과정의 잘못된 적용, 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수업 내용, 수업의 지루한 전개, 영어학습에 대한 지나친 압박, 영어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자신감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또래집단에 대한 의식, 본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영어를 사용할 기회의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학생에게 흥미있는 소재의 사용, 직접적 활용의 기회 제공, 교사의 관심 확대, 언어 사용의 기회 확대, 교사 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영어교과를 접근할 때 초등학생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영어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첫째,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 둘째,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영어수업의 소재를 고민해 보고, 꾸준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반복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평가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줄여 학생들이 평가를 위한 영어공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 혼자만의 노력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수업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영어학습에 대해서 갈수록 낮아지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면담을 통해 그 원인을 심층 분석한 후 앞으로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는 것이다.

영어학습 도입을 통한 영어능력의 신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초등 영어 교육이 실시된 이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점차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학생의 영어학습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흥미, 적성, 지능, 동기, 태도, 습관, 학습책략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성일호(1995)에 따르면, 학습자가 제 2언어 학습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동기 및 학습 습관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교육 및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한 후천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후천적인 요인인 정의적 태도가 제 2언어 학습에 작용하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에 고시된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영어학습의 정의적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파악하여 실생활에 관련된 구체적 조작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영어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동시에 흥미로운 교육 매체를 사용한다. 실제로 영어학습을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의 교실을 들여다 보면, 새로운 언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위주의 학습활동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쳐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 학생들은 이내 영어를 포기한 듯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초등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점점 감소하게 되었고, 수업에 대한 의지가 낮아질수록 자아효능감은 감소하고 불안감도 대체로 상승하였다(박경희,2012).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직접 관찰해도,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습 전반적으로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경향을 보인다. 류동수(2005)에 따르면, 언어 기능별 흥미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모든 기능에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낮아지고, 불안감이 상승한다는 것은 보고하였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에 대한 정의적 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조사한 후, 그에 따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초등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을 중심으로 한 양적연구방법으로 해석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측면에서 질적연구방법 역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로서 가지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 서귀포시내 한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학습 인식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불안의 정도와 더불어 학교 안과 밖의 주변 환경 요인을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학습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를 조사하고 이를 흥미와 자신감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의적인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알아보고, 향후 초등학교 영어수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영어학습에 대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대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대한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문을 통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영어 흥미도 및 자신감의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후 정의적 태도가 낮은 학생들과 높게 나온 학생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가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 학년에 대한 3학년에
서 6학년까지의 종단연구를 실시해야 하나, 시간상의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으
로 한 학년에 대한 한 시점에서의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 S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중 설문 응답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선정한 학생들에 대해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연구의 특성상 한
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초등
학생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과 학생 특성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학생이 받았던 사교육, 학생의 가정 내 양육환경,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으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이 학생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없었다.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과 영어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 초등학생의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 영어과 교육과정

2011년도에 고시된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과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에 있다. 또한, 외국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교육으로의 영어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둘째,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셋째,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넷째,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균형 잡힌 태도와 자세를 기른다.

특히,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등학교 영어의 목표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다.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초등학교 영어의 목표가 크게 흥미, 자신감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도구 및 면담자료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 및 인터뷰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영어학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태도

정의적 태도란 평소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인간의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외국어를 습득할 때 흥미, 자아효능감, 불안감 등의 정의적 태도는 영어학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언어 습득과 정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Krashen(1981)의 대표적인 이론인 '정의적 여과 가설(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Krashen은 모국어는 선천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언어 습득 장치(LAD: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작동하여 언어 습득을 무의식적으로 하지만, 제2언어의 경우 학습자가 곧바로 언어습득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정의적 여과 장치(affective filter)'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적 여과 장치는 학생의 학습 동기, 자아효능감, 불안감 등의 요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여과막에서는 투과가 잘 될수록 학습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즉 불안감이 적고 자아효능감이 크다면 새로운 목표 언어를 접하더라도 적은 저항감을 보이게 되고, 따라서 언어를 다소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어 습득에 대한 동기가 큰 학생은 그만큼 외국어 습득시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습득 속도도 자연스레 빨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언어가 효과적으로 습득되려면 이 여과막의 투과가 잘 되도록 하여 언어 자료의 투입에서 언어 습득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손쉽게 열려야 할 것이다. 학습자의 불안감이 낮은 상태에서 동기 유발이 잘 이루어져 있고 높은 자신감으로 수업에 임한다면 이 여과 장치의 벽이 점차 낮아져서 보다 효율적인 제2언어 습득이 실현될 것이다. 즉 제2언어 학습의 큰 변수로 정의적 태도가 성패를 좌우하며, 이러한 정의적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여 외국어 학습을 얼마나 성취하는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2언어가 이해 가능한 수준에서 활발히 입력되고, 언어 습득을 위해 가장 적합한 정의적 태도가 형성되어 여과막이 낮아진다면, 효과적인 언어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박순용과 홍진의, 2008, p.142)

가. 흥미(interest)

흥미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끌리는 정도를 뜻하고 언어 학습에서는 학습 흥미와 적성 흥미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경험적 방법을 통해 그 대상과 범위 및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흥미도는 학습자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것에 대한 비율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탁진국, 1996). 언어 학습에 있어서 흥미도가 고려된 발화 활동이나 흥미를 주기 위해 긴밀하게 구성된 교수학습 활동 등은 각 활동에 내재된 언어 요소들을 덜 체계적이며 덜 제도적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언어 발화 활동에 참여할 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높은 흥미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언어 학습에 있어 높은 흥미도를 가지게 되면 언어에 대한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때 동기 부여가 되어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경석, 김혜련, 박기화, 박약우, 김진철, 이재희(2004))

1) 동기(motivation)

Gardner(1983)는 학습 동기를 둘로 나누었는데, 먼저 특정한 교육적, 재정적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배우는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특정 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화 또는 적응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제2언어의 문화권 안으로 자기 자신을 통합시키고 그 사회와 자신을 동화시켜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 갖게 되는 것이 통합적 동기이다. 특히 Lambert, Wallace(1972)와 Spolsky, Bernard(1969)의 연구에서 통합적 동기는 외국어의 어학능력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 언어 학습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Dornyei(1994)는 내적 동기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행동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특정 보상을 바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행동을 하는 데서

오는 스스로의 기쁨이나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이 내적으로 보상 받는 결과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외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인한 행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특정한 보상을 기대하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고 보았다. Heyman과 Dweck(1992)은 이러한 동기를 성취 목표와 학습 목표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내적 동기는 학습 목표와 더 일치하고, 외적 동기는 성취 목표와 더욱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교 영어교육 상황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이러한 내·외적 동기는 영어 학습 성취도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이효웅, 1996)를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내·외적 동기를 검토해 보았다.

2) 태도

태도는 주어진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으로나 비호의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기질이다(Fishbein, Ajzen, 1981). 또한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갖는 신념인 인지적 요소, 감정을 나타내는 정의적 요소, 행동적인 반응을 나타낸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여 정의내릴 수 있다(Freedman, 1981). 따라서 태도는 전형적으로 특정한 대상을 향한 감정이므로, 감정과 특정 대상간의 결합은 학습되고, 일단 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대상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같은 감정을 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학교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적과 자아개념에도 영향을 미친다. 학교학습에 대한 태도는 학습자의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아개념이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되고 학교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를 보인다(이영주, 1999).

나. 자신감

1)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이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과정들을 조직하고 수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86, 1997). 이러한 자신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행동의 수준이 결정된다(김아영, 2007). 자아효능감은 흔히 자신감(confid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 등의 개념과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아효능감은 이들 개념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먼저 자신감이란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서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신념을 가리키는 데 비해,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한 확신 및 그러한 신념이 지닌 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Bandura, 1997). 예를 들면, 자신감이란 막연하게 특정 영역을 지정하지 않고 “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항상 자신 있어”라고 말하거나 “나는 영어에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이에 비하여 자아효능감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체육시간에 뽀뽀를 잘 넘을 수 있어” 또는 “내일 수학 시험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잘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자아효능감은 자아존중감과도 구별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믿는 정도를 말한다. 개개인이 자신에게 갖는 태도 속에 흔히 반영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의사소통이나 표현행동에 의해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스스로의 주관적 경험이기도 하다(황은경, 2002). 즉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학생이 실제로 영어에 대한 자아효능감이 낮고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어가 자신의 삶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자아효능감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개념인 결과기대는 본인이 행한 특정한 행동 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므로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효능성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자신이 수행할 행동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사전 숙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효능 기대를 설정하여 동기를 유발하고 행위를 예상하는 자아효능감과 행위를 하고 난 후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하는 결과 기대는 구분이 된다(Bandura, 1986, 1988).

2) 불안감

‘불안’이란 짜증, 또는 걱정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과 관련된다. 불안은 무서움, 걱정, 불편함, 두려움 등의 감정을 유발 할 수 있다(Bouras & Holt, 2007).

Horwitz, Horwitz와 Cope(1986)는 언어 불안이란 ‘언어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독특함과 관련된 신념, 감정, 자기인식, 행동들의 복합체’라고 정의하였다. 불안이 언어학습 상황에 의하여 제한될 때 그것은 특정한 불안 반응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불안감과 특정한 상황에서만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특정 불안 반응(specific anxiety reac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990년대 후반까지 불안에 대해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은 불안을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이중 몇몇 연구들은 불안이 학습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Brown, 2007). Eysenck(1979)는 과업 수행의 질적인 수준과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인지과정의 효율성에 작용하는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rown(2007)은 불안이란 부정적이며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즉, 성취해야 할 어떤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안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불안이 학습자에게 긴장감을 유발하더라도 이는 적정 수준의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오히려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책임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불안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긴장감과 경쟁심을 유발시켜 보다 나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안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면, Aida(1994)는 우선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불안심리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학생은 향후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MacIntyre와 Gardner(1994)도 비디오 카메라가 학생들에게 유발하는 불안감에 대한 연구에서 불안감을 교정적 행동이 필요한 부정적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Phillips(1992)도 중급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4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불안과 학습 성취도를 연구하였는데, 말하기 시험에서 불안이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염규율(1998)은 불안이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3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영어 학업 성취도와 외국어 불안 수준의 사이에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회화, 듣기 독해 세 가지 영역에서 불안을 가장 조금 느끼는 집단의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안은 언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나,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Brown, 2007).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황은경(2002)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불안감이 점점 낮아진다고 제시하였는데, 영어 수업에 대한 익숙함, 수업 방법과 형태에 대한 경험 증가, 교과 내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 등이 그 요인이라고 분석함으로써 이를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복형(2007)은 학생들이 경험한 영어 사교육의 유무가 초등영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정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밝히는 연구에서 영어 사교육이 학생들의 불안감을 낮춰줌으로써 학습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반면에 영어 사교육은 학부모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수준별 수업에 대한 우열반 편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속되는 선행학습으로 인하여 학교 영어 수업에 대한 흥미와 열의를 저하시키게 된다.

이의경(2007)에 의하면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시기가 어릴수록, 영어학원에

다닌 기간이 길수록, 영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시기가 어릴수록 불안감이 낮았다. 불안감이 낮은 학습자는 영어학습 시 다양한 학습 방법을 고르게 선호하였고, 학습교재를 선택할 때도 비교적 어렵지만 도전적이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선호하였다. 반면에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은 원어민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다.

다. 학습습관

학습습관이란 여러 가지 학습 활동 장면에서 학습자가 특정 행동을 선호하여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학습자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상호 연관된 학습 행동의 반응 양식을 말한다(변창진, 문수백, 1994). 습관이란 자주 반복되거나 행동이 용이하거나, 사회적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습득된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5). 종합적인 의미에서 학습습관이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학습 행위의 단순한 반복형태만을 의미하는 관습뿐만 아니라 학습행위에 대한 동기 및 태도 그리고 기술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학문적 자아개념과 교과 관련 정의 등이 학습과정에 투입과는 정의적 태도가 라고 한다면, 학습습관이란 학습자에게 내면화된 정의적 태도가 학습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외현되는 구체적으로 행동 양식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습관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업성적 향상에 지장을 주는 부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정의적 태도는 개인에게 비교적 일관적으로 지속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 습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의적 태도가 학습된다는 것은 개인의 지적인 특성이 인지적 수준에서 학습되어지는 것과는 달리 상당 수는 내면화의 과정을 통해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의적 태도 중 흥

미와 자신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인 성향을 띠는 이유는 무엇인지, 같은 이유로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정의적 태도란 감정이나 정서를 나타내는 인간의 속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외국어 습득시 흥미, 자아효능감이 연구에서는 영어 말하기 활동에 대한 초등학교의 정의적 태도의 비교·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혼합 연구’의 설계를 통해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양적 연구로는 횡단연구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위하여 수업 내에서 관찰한 학습자의 심리적 변화를 우선 관찰하고 수업 이후에 학습자와의 면담, 그리고 영어전담교사에 의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혼합 연구’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표본으로부터 통계적 결과를 얻고 나서 더 심도 있게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정의적인 변수들의 특성상 평가 도구 문항과 같은 검사 도구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의적 영역의 평가 방법으로 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특히 양적 연구는 면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용도로 실시하여 원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 질적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교실에서의 전반적인 수업의 효과를 그려나가도록 했다. 이는 설문지 조사 중심 연구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정의적 태도 측정에 대한 어려움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보완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학생의 성향이나 태도 차이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의 경우 학생의 정의적 태도 영역에 대한 1차 설문을 실시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학습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교사의 수업 관찰 분석, 교사 면담, 그리고 수업에 대한 참여 관찰 기록지 등을 연구 도구로 삼아 일차로 실시한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해 원인 분석을 해보았다.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S 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61명이다. 2015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 자아효능감, 흥미도, 불안감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절차

가. 양적 연구

정의적 태도의 세부 항목을 학생의 흥미, 동기, 자아효능감, 불안 심리로 나누어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Likert의 5척도를 바탕으로 응답 문항을 설정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 특성에 의해 문항을 분류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와 동시에 응답 태도의 일관성을 분석하여 알아보기로 설계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분석하고자, 피설문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3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할 면담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질적 연구

대부분의 질적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상학자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주관적인 여러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보제공자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부터 이들이 어떤 의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이들의 관념세계에 들

어가려고 노력한다. 우리 각자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체를 구성하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라고 현상학자들은 믿고 있다. 따라서 실체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은 해석에 의해 중재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경험의 해석 과정은 경험에 따른 부수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며 본질적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정의와 그 정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만 한다. 인간은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람은 미리 정의된 대상들에 대해 미리 결정된 반응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해석자, 정의자, 부호 생성자, 상징적 기호와 부호 해독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행위는 참여 관찰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정의를 만드는 과정을 파헤치는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의미를 구성한다. 특정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된 여러 정의들을 종종 개발하는데, 그 이유는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동일한 경험과 문제, 배경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유한다고 해서 서로간의 합의가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공유된 정의들”이 바로 “진리”를 나타낸다고 하지만 의미란 주관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 의미는 그것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어떤 특정한 정의에 따라 행동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의가 적합하지 않아 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낡은 정의를 버리고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며 이로써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해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대상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의 정도도 다양하고, 다양한 대안적 의미가 부여되고 창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질적 연구의 장점은 현장에 있는 연구 대상자들과의 대면적인 상황 속에서 양적 자료가 간과할 수 있는 상당 수의 부분을 참여관찰 자료 및 면담을 기록

한 언어적 자료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영어학습 인식에 대한 정의적 태도에 대한 설문지와 같은 양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자의 정의적 태도에 관해 직접적으로 면담하고 관찰하는 질적 연구를 병행했다. 실시한 면담 내용은 설문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성한 질문과, 관찰 결과 설문지에서 놓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진행했다. 연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은 앞서 실시한 1차, 2차 연구에서 응답한 학생 중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8명을 선정하여 면담하였다. 또한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영어전담교사, 이윤정 교사에 대한 면담도 실시하여 학생 면담에서 얻지 못한 학생들의 평소 영어학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하였다.

<표 1> 면담 참여자 목록

번호	이름	성별	지위	연령	학업성취도	정의적 태도	비고
1	이예슬	여	초등학생	13	상	긍정	
2	김민서	남	초등학생	13	상	중립	
3	김동욱	남	초등학생	13	중	긍정	
4	강고은	여	초등학생	13	중	중립	
5	김지은	여	초등학생	13	중	중립	
6	나현승	남	초등학생	13	중	부정	
7	이정훈	남	초등학생	13	하	부정	
8	최태민	남	초등학생	13	하	부정	
9	박하정	여	초등학생	13	하	부정	
10	김선유	여	교사	28			영어전담
11	Jeanette	여	교사	32			원어민교사
12	이윤정	여	교사	28			담임교사

다. 검사 도구

본 연구는 설문 조사 연구 및 면담, 수업장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용된 도구는 영어 흥미도 검사지, 면담을 실시한 인터뷰 자료이다.

1) 설문 조사지

가) 내용 구성

설문 조사지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 흥미, 동기, 자아효능감, 불안 심리를 선정하였다.

나) 문항 구성

검사 문항은 각종 변인들을 고려한 후에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검사지는 총 27문항이다. 검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 2> 양적연구를 위한 1차 설문조사지

하위 요소	문항 번호	내 용
흥미	1	나는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다.
	2	나는 영어시간에 하는 말하기 활동 즐겁게 참여한다.
	3	나는 영어시간에 하는 듣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4	나는 영어시간에 하는 읽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5	나는 영어시간에 하는 쓰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동기	6	나는 시험성적을 잘 받는 것이 좋아 영어공부를 한다.
	7	나는 남에게 영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8	나는 영어를 잘하면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잘 하고 싶다.
	9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영어공부를 잘 하고 싶다.
	10	영어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11	영어공부를 하면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영어공부를 한다.
	12	나는 나중에 외국인과의 대화를 잘 나누기 위해 영어공부를 잘하고 싶다.
	13	나는 영어공부를 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자아 효능감	14	나는 영어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우리 반에서 영어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16	나는 영어 시험을 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17	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18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넘어간다.
	19	나는 영어시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 심리	20	나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더듬거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내가 틀리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22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23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 떨린다.
	24	나는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하게 느낀다.
	25	내가 영어로 말하면 왠지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 것 같다.
	26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잘 했다고 생각한다.
	27	영어 시간에 잘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공부한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표 3> 2차 설문조사지

하위 요소	문항 번호	내 용
흥미	1	영어공부가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안	2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떨리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정의적 측면의 양상과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가지게 된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양적 연구에서 설문조사 실시 결과로 나타난 영역별 정의적 측면의 양상을 살펴본 후,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심층적인 생각을 알아보고,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연구를 진행한 학교의 특성상, 6학년 학생 중 상당수의 학생은 영어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목적은 1차 및 2차 양적연구를 통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지니는 학생을 가려내 혼합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응답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부정적인 응답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 보다는 고 부정적인 응답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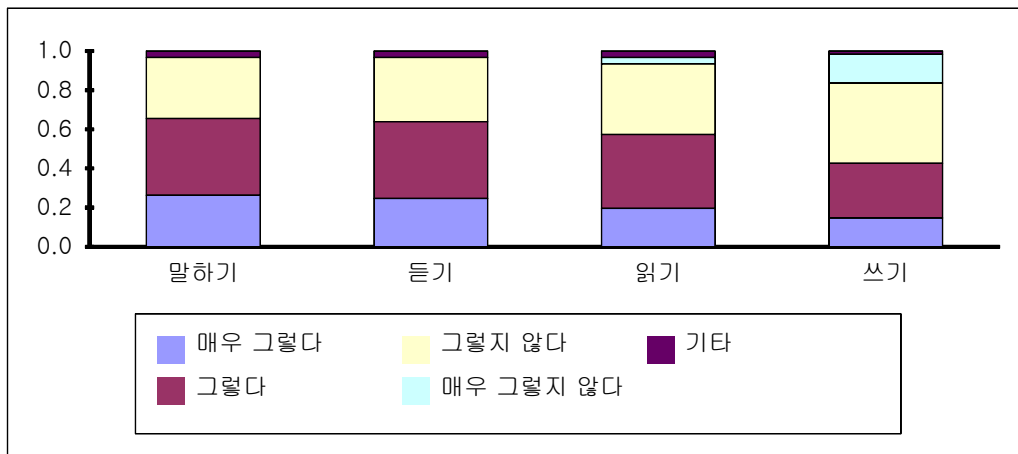
1. 양적 연구

가.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 분석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결과는 <표 1>과 같았다.

<표 4>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 비교

		2~5. 나는 영어시간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응답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말하기	18(29.5%)	22(36.1%)	19(31.1%)	0(0.0%)	2(3.3%)	
듣기	16(26.2%)	24(39.3%)	19(31.1%)	0(0.0%)	2(3.3%)	
읽기	15(24.6%)	24(39.3%)	20(32.8%)	0(0.0%)	2(3.3%)	
쓰기	12(19.7%)	23(37.7%)	22(36.1%)	2(3.3%)	2(3.3%)	



<그림 1> 각 영역별 영어 흥미도 비교 그래프

<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 대한 흥미도는 긍정적인 반응에서 말하기 65.6%, 듣기 65.6%, 읽기 63.9%, 쓰기 57.4%이며, 부정적인 반응에서 말하기 31.1%, 듣기 31.1%, 읽기 32.8%, 쓰기 3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류동수,200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흥미도의 긍정적 반응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각 영역 중에서도 쓰기 영역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분석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분석하기 위해 외적동기에 대한 문항(6~9번), 내적동기에 대한 문항(10~13번)을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설문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분석

6. 나는 시험성적을 잘 받는 것이 좋아 영어공부를 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9	17	25	9	1
백분율	14.8%	27.9%	41.0%	14.8%	1.6%

7. 나는 남에게 영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6	16	32	7	0
백분율	9.8%	26.2%	52.5%	11.5%	0.0%

8. 나는 영어를 잘하면 나중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잘 하고 싶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6	19	22	4	0

백분율	26.2%	31.1%	36.1%	6.6%	0.0%
-----	-------	-------	-------	------	------

9. 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영어공부를 잘하고 싶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7	18	29	6	1
백분율	11.5%	29.5%	47.5%	9.8%	1.6%

10. 영어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7	8	31	14	1
백분율	11.5%	13.1%	50.8%	23.0%	1.6%

11. 영어공부를 하면 내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아서 영어공부를 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9	19	25	7	1
백분율	14.8%	31.1%	41.0%	11.5%	1.6%

12. 나는 나중에 외국인과 대화를 잘 나누기 위해 영어공부를 잘하고 싶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6	22	17	4	2
백분율	26.2%	36.1%	27.9%	6.6%	3.3%

13. 나는 영어공부를 하면 재미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8	25	21	6	1

백분율	13.1%	41.0%	34.4%	9.8%	1.6%
-----	-------	-------	-------	------	------

응답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살펴보면, 외적 동기를 묻는 문항(6~9번)에서는 시험성적, 타인에 대한 인정, 좋은 직업, 부모와 교사에 대한 인정 모두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각각 41.0%, 52.5%, 36.1%, 47.5%로 가장 많았다. 내적 동기를 묻는 문항(10~13번)에서는 마음의 불편함, 자신에 대한 자랑스러움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각각 50.8%, 41.0%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과의 대화,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각각 36.1%, 41.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설문을 분석하며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있는 등 학생들의 생각을 알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동기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인 면담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다. 영어 수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분석

학생들이 영어수업에 대해 얼마나 자아효능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영어 수업에 대한 자아효능감 분석

14. 나는 영어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2	21	23	3	2
백분율	19.7%	34.4%	37.7%	4.9%	3.3%
15. 나는 우리 반에서 영어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1	18	20	11	1
백분율	18.0%	29.5%	32.8%	18.0%	1.6%

16. 나는 영어 시험을 본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5	16	22	6	2
백분율	24.6%	26.2%	36.1%	9.8%	3.3%

17. 나는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4	24	19	4	0
백분율	23.0%	39.3%	31.1%	6.6%	0.0%

18.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넘어간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7	15	25	14	0
백분율	11.5%	24.6%	41.0%	23.0%	0.0%

19. 나는 영어시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6	22	18	5	0
백분율	26.2%	36.1%	29.5%	8.2%	0.0%

학생들의 응답 결과 중 빈도가 가장 높은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은 영어 시간에 대한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37.7%), 우리 반에서

영어공부를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32.8%). 그리고 영어 시험을 받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36.1%). 그러나 영어의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며(39.3%), 영어를 공부할 때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41.0%), 영어시간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36.1%)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불안 심리 분석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갖는 불안 심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불안 심리 분석

20. 나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더듬거리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3	26	17	5	0
백분율	21.3%	42.6%	27.9%	8.2%	0.0%

21. 나는 내가 틀리더라도 영어로 말할 수 있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3	26	17	5	0
백분율	21.3%	42.6%	27.9%	8.2%	0.0%

22. 나는 영어를 공부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1	22	14	14	0
백분율	18.0%	36.1%	23.0%	23.0%	0.0%

23.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 떨린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8	9	18	24	2
백분율	13.1%	14.8%	29.5%	39.3%	3.3%

24. 나는 학교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 편안하게 느낀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12	22	18	9	0
백분율	19.7%	36.1%	29.5%	14.8%	0.0%

25. 내가 영어로 말하면 왠지 다른 학생들이 비웃을 것 같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4	10	24	22	1
백분율	6.6%	16.4%	39.3%	36.1%	1.6%

26.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잘 했다고 생각한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8	13	25	14	1
백분율	13.1%	21.3%	41.0%	23.0%	1.6%

27. 영어 시간에 잘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공부한 것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응답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기타
빈도수	8	13	23	16	1
백분율	13.1%	21.3%	37.7%	26.2%	1.6%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보여준 낮은 흥미도, 낮은 동기에 비해 불안감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도와 동기가 낮은 학생들 중에서도 불안감이 높은 학생들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2. 양적 연구(2차 설문)

1차 설문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흥미 및 동기, 자아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학생 15명을 선정하여 보다 자세한 생각을 조사해 보았다. 2차 설문은 Likert의 5척도가 아닌 자유서술식 문항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8> 영어공부에 흥미가 없는 이유

1. 영어공부가 재미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빈도수
단어를 외우기가 힘들다.	3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2
시험이 너무 많다.	2
영어수업이 매번 뻔하게 전개된다.	3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	2
선생님께서 자꾸 영어만 사용하셔서 알아듣기가 힘들다.	1
무응답	2
합계	15

<표 9>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떨리는 이유

2.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	빈도수
숙제를 못해온 경우가 있어서	1
집중을 안하는 학생들만 부르기 때문에	3
어려운 것 시킬까봐	4
친구들 앞에서 이름이 불리면 부끄러워서	5
오히려 이름이 불리고 싶음	1
무응답	1
합계	15

3. 질적 연구(면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계산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2차로 실시한 설문지에서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 중 연구자의 판단으로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어전담 교사 및 담임교사에 대해서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시된 면담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의적 태도가 부정적인 원인을 특성별로 유목화하였다.

가.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대답을 중심으로 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을 크게 부정과 긍정으로 구분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9명의 학생들 중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명,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4명, 중립적인 입장인 학생은 3명이었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영어수업 자체가 본인에게 흥미있게 다가온다고 하였으며, 영어수업에 대해서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조사자: 평소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예슬: 저는 영어공부를 제일 좋아해요.

조사자: 어떤 점에서 영어공부를 제일 좋아한다는 의미니?

이예슬: 영어공부는 제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잘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요.

조사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니?

이예슬: 처음에 제가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서 엄마께서 제게 책이라도 읽어 보라고 하시며 영어동화책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엄마를 졸라 계속 해석해 달라고 했었는

데,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뜻을 찾아보게 되고, 엄마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영어테이프도 사다주시고 하다 보니 점점 영어가 재미있어진 것 같아요.

조사자: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니?

이예슬: 그때보다 지금 영어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졌어요. 학교에서 여러 대회를 나가 상도 받고 하다보니 이제는 영어를 더욱 많이 공부해서 영어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예슬은 신체적인 문제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학생이다. 부모님께서 예슬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영어동화책을 사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된 경우이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영어 학습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각종 대회에도 나가게 되고 장래희망도 영어와 관련된 것으로 정했다고 하였다. 영어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김동욱: 처음에는 한글이 아닌 다른 글자로도 소리를 낼 수 있고, 제가 그런 글자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영어가 좋았어요. 그냥 당연히 수업시간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 지금도 영어가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영어수업시간에 가도 딱히 힘들다는 느낌을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끔씩 선생님께서 영어랑 관련된 게임을 하시거나 영화를 보여주실 때도 재미있어요.

김동욱은 영어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지만 단순한 영어글자에 대한 흥미를 바탕으로 하여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어 학습 시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정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영어수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싫다”, “짜증난다”라는 부

정적인 문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조사자: 영어수업시간이 싫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니?

김지은: 일단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구요, 영어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매일 잘하는 아이들만 칭찬하시고, 잘하는 아이들이랑만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소외감이 들 때도 있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해서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강고은: 저는 영어수업이 좋기는 한데, 외국인선생님께서 제 주변에 다가오는 게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물어보실까봐 좀 긴장도 되고 그래요.

이정훈: 저는 영어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기가 싫은데 왠지 발표에 걸릴까봐 영어수업시간 자체가 싫어요.

강고은: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알려주기 싫다고 하면서 안 알려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땐 괜히 창피하고 제 자신이 못나보이기도 해요.

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김지은은 영어학습 성취도가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어학습에 대한 성취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강고은과 이정훈은 외국인선생님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으로 인해 자신이 주목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하고 있으며, 영어수업시간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영어학습을 직접 가르치는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수업시간 참여도 및 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조사자: 선생님, 면담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해 갖는 정의적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해간다고 하네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김선유 교사: 우리학교 6학년 학생들은 유독 성실하고 착해서 수업시간에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교실 내에서 몇 명의 학생은 흥미가 없는 모습을 보이죠.

조사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주로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을 꺼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선유 교사: 게임같은 것 할 때는 재미있게 참여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단순히 반복하며 배우는 활동은 싫어해요.

조사자: 그럴 때는 학생들이 어떤 태도로 참여하나요?

김선유 교사: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업시간에 자신의 감정을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현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로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지루해 하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책상에 엎드려버리거나, 턱을 괴고 짜증난다는 표정을 짓기도 해요.

김선유 교사 역시 수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흥미를 잃고 있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학생들 및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크게 흥미와 자신감으로 구분하고, 세부 항목을 분석하여 보고자 했다.

나. 낮은 흥미도의 원인

학생들의 흥미도가 낮은 원인은 교육과정의 잘못된 적용, 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수업 내용, 수업의 지루한 전개, 영어학습에 대한 지나친 압박, 영어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교육과정의 잘못된 적용

조사자: 영어공부를 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더 듣고싶어. 좀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어?

박하정: 일단,, 학교에서 매주 단어시험을 보는데요. 그게 너무 싫고 힘 들어요. 가끔은 짜증도 나요.

조사자: 그렇구나. 외워야 해서 힘든거야?

박하정: 그런 것도 있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귀찮고 그래서 싫어요.

조사자: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구나.

박하정: 네.

조사자: 주로 어떤 시험을 보니?

박하정: 매주 단어 15개정도 시험을 봐요.

박하정은 영어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시험의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단순한 단어 위주의 시험이기는 하지만 매주 반복되는 시험에다 과거에 비해 늘어난 학습량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나현승, 최태민: 아무래도 시험볼 때는 긴장도 많이 되고, 싫어요. 10문제 시험을 보는데, 끝나면 틀린 개수만큼 오답노트도 되고, 재시험도 보기 때문이에요.

조사자: 그렇다면 많이 틀리는 편이니?

나현승: 네, 저는 5개정도 틀려요.

최태민: 저는 저번에 단 한 개도 못 맞은 적도 있어요.

조사자: 그런 시험을 보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겠구나.

나현승: 네. 잘하고 싶은데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많이 틀리면 좀 힘도 빠지고 그래요.

조사자: 작년에는 영어선생님이 달랐다고 들었는데, 작년도도 시험을 본 적이 있었니?

최태민: 시험은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6학년이 되었을 때는

시험이 더 어렵고 그래서 힘들어요.

나현승과 최태민 역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으로 보아, 많은 학생들이 영어수업시간에 실시되는 각종 시험의 형태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개정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 따르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성취도에 대해 인식하며 자극을 받고 학습 동기가 유발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일제식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의 잘못된 해석 및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점차 잃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 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수업 내용

조사자: 그리고, 아래 문제 중에 듣기, 읽기, 쓰기 활동은 다 싫다고 했는데 말하기 활동은 즐겁게 참여한다고 대답을 했네? 그 이유는 뭐야?

박하정: 수업시간에 그냥 친구들이랑 말하는 건 부담이 없으니까요.

조사자: 그럼 영어시간에 하는 게임같은 활동에도 즐겁게 참여해?

박하정: 네. 그리고 팝송같은 노래부르는 것도 좀 재미있어요.

이는 앞서 실시한 설문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쓰기 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과 입장을 함께한다. 비록 전반적인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낮게 나타나나, 영어 시간에 팝송이나 게임 등으로 학생들이 서로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활동에는 높은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보아 선호도가 다소 낮은 읽기, 쓰기 활동도 학생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활동이 절실하다.

3) 수업의 지루한 전개

조사자: 하정이가 영어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던데.. 그럼 하정이는 영어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해.

박하정: 그냥 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하는거예요. 별로 하고싶지는 않은데.

조사자: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박하정: 영어 수업시간에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 같은 걸 계속 따라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웬지 영어로 말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따라 말하라고만 하시니까 가끔은 졸리기도 하구요.

박하정은 영어학습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수준보다 높은 난이도의 수업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실시되다 보니 영어로 말하는 기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어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민서: 사실 영어수업을 할 때 내용이 좀 지루할 때가 많아요. 매일 내용은 다르기도 한데 웬지 느낌이 뻘한 전개 같기도 하고 몇 번 반복하다가 끝나기도 해서 재미없을 때도 있어요.

이정훈: 영어 표현은 많이 알게 돼서 좋기는 한데 계속 반복만 하니까 지루하고, 어떨 땐 수준이 낮은 느낌도 들어요.

위의 두 학생은 반대로 영어수업이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수준보다 낮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낮은 흥미도를 보이고 있다. 학생의 수준과 그 차이를 고려하기 힘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듯, 한 교실 내에서도 각자 다른 이유로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다. 한편, 영어전담교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여 교사가 느끼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태도를 알아보고, 그 원인에 대

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조사자: 선생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김선유 교사: 사실 제가 담임교사도 아니고 그 학생들을 일일이 지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최대한 그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수업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조사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흥미 및 자신감 또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하는 활동이 계신가요?

김선유 교사: 우선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최대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들을 수업으로 가져오죠. 예를 들어 시간을 물어보는 표현에서는 런던의 명물인 ‘빅벤’을 소개해 준다든지, 자신의 장래 희망과 관련해서 미래 명함 만들고 소개하는 활동 등을 하면서 영어표현을 익히는 상황을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자: 그럴 때 학생들의 수업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끼나요?

김선유 교사: 확실히 학생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운 태도로 참여해요. 그렇지만 매 수업시간을 저 혼자 그렇게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점은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게 큰 단점이에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김선유 교사 역시 고학년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싶다고 했다. 김선유 교사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또래 분위기가 영어학습 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만드는 주된 원인이라고 하며, 특히 영어학습에 소극적인 학생들은 과거 영어학습에서 부진한 성적을 얻었던 경험이 누적된 학생들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흥미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수업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Jeanette: Actually I have difficult time to co-teaching with her(전담 교사). But she has ordered to me that. and I told her one time, There is lesson and activiry, but almost every activity was listen and repeat. It was different thing. One was game and one was power-point, one was others. I can't remember something else but it was still the same, but every format was 'Listen and Repeat'.

영어수업시 수업을 지원하는 Jeanette 교사는 한국인교사의 주된 수업 방식이 'Listen and Repeat'에 국한되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정형화된 수업 방식이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대한 의지 및 흥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영어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

조사자: 하정이가 영어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했던데.. 그럼 하정이는 영어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는건지 궁금해.

박하정: 그냥 영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하는거예요. 공부를 하고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데.

조사자: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혹시 학교 밖에서도 영어공부를 하니?

박하정: 예전에는 학원을 다녔었는데, 너무 싫어서 그만뒀어요.

조사자: 무슨 일 있었니?

박하정: 저희 엄마가 무조건 너는 기초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영어 학원 기초반으로 저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우는 게 오히려 더 재미없어져서 4학년 쯤 그만뒀어요.

영어학원에 대한 박하정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하정은 사교육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어린시절 부모의 잘못된 사교육 선택과 과도한 압박이 오히려 자녀의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키고 있다.

김민서: 저희 선생님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매번 다음 시간에 단어시험을 본다고 하면서 10번씩 쓰기 숙제를 내세요. 처음 배우는 거라서 어렵기도 하고, 시험을 틀리면 남아서 숙제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셔서 그럴 때는 엄청나게 긴장이 돼요. 그럴 땐 문제를 더 틀려요.

김민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수업 후 매번 보는 평가에 대한 긴장감을 토로하고 있다. 수업 중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이 학생은 시험까지 겹치게 되면서 긴장상태에 빠지고, 시험문제를 더 틀리다 보니 점차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있다.

Jeanette: Last week, 3 students cried because of the dictation test, he didn't do so good.

실제로 영어학습 시간에 진행되는 각종 평가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울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고 Jeanette 교사는 응답하고 있다. 영어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못하며, 결국은 큰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영어학습의 필요성 자각 부족

조사자: 예슬이는 평소에 영어 수업시간에도 즐겁게 참여하고, 영어 대회에도 자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맞니?

이예슬: 네.

조사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맞구나. 혹시 부모님께서 나가라고 권유하신거니?

이예슬: 그건 아니고, 평소에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어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사자: 꿈? 어떤 꿈이 있는데?

이예슬: 저는 나중에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처럼 세계인들이 모두 재미있게 읽는 소설을 꼭 쓰고 싶어요.

조사자: 예슬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구나. 너의 꿈과 영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예슬: 우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영어고, 영어를 이용해서 소설을 쓰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어로도 소설을 쓸 수 있지만 번역의 문제로 다른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영어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어학습에 대한 높은 흥미가 있는 이예슬은 주변의 권유 및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영어공부를 접하였고, 이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 경우이다. 영어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조사자: 태민이는 유독 영어시간이 재미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영어시간이 싫은 이유가 무엇이니?

최태민: 영어공부를 해봤자 저한테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조사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줄 수 있니?

최태민: 영어공부를 해봤자 수업시간이 아니면 말할 기회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싫어졌던 것 같아요.

조사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니?

최태민: 그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자: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니?

최태민: 가끔요. 어차피 학원 다니는 애들만 영어공부를 잘하니까 개네
만 수업시간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수업시간에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나중에 외국에 안 가면 되니까 저한테 영어가 필요
없어요.

최태민은 영어학습에 대한 별다른 흥미가 없는 상태에서 영어학습을 접한
것으로 추측되며, 영어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가지지 않은 상태
이다. 수업에 대한 흥미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에 대
한 성취도 역시 많이 낮아지게 되었다.

다. 낮은 자신감의 원인

학생들의 자신감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또래집단에 대한 의식, 본인의 영어
실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영어를 사용할 기회의 부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또래집단에 대한 의식

조사자: 너의 마음이 불편했겠구나. 그리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
그러면 좋은 점수를 못받을 것 같다는 의미야?

박하정: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받을 것 같아요.

조사자: 몇 점 정도를 이야기하는거니?

박하정: 대략 7~80점정도요.

조사자: 그렇구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떨리는 이유는 뭐야?

박하정: 항상 못하는 아이들만 시키니까요. 대답 못하면 부끄럽잖아요.

조사자: 예전부터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
었니?

박하정: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싫어요.

조사자: 아니면 영어성적을 친구들과 차이나게 받아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거니?

박하정: 그런 적은 없어요.

박하정은 같이 수업을 받는 다른 친구들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영어성적으로 인해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비슷한 성적을 받기를 원했으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목받는 것이 싫다고 했다. 사춘기에 갓 들어선 학생들이 주로 보이는 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김익상, 고경희(2012)의 연구 결과, 한국의 학습자가 특히 동료와의 경쟁의식을 보다 쉽게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신경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큰 불안을 느끼게 된다는 점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

조사자: 수업을 받을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김지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수업하다 보면 자꾸 옆쪽에 앉은 친구들이 신경쓰여요. 괜히 눈치도 보게 되고. 그래서 발표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을 때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 그냥 손들지 않고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조사자: 발표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니?

김지은: 그건 아닌데요, 괜히 된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요. 저도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많이 하거나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러면 ‘재 왜저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김지은은 교사가 제시하는 문제의 정답을 알고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가만히 앉아 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수업에서 적극적인 친구들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대답을 했다. 친한 친구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그 무리 사이에서 돋보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래집단의 분위기가 실제

로 개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무기력한 상태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개인의 수업 성향까지 바뀌며, 이는 정의적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미친다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조사자: 교실에서 지은이가 보이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윤정 교사: 작년까지만 해도 학급 내에서 수업태도도 바르고 학업성취도도 높으며 교우관계도 좋은 학생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런 태도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일단 발표는 거의 하지 않고, 물어보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구요, 학업성취도는 꽤 좋은 편이에요. 이상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행동도 많아졌구요. 그런데 쉬는시간에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조사자: 김지은과 친한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편인가요?

이윤정 교사: 아니요, 친한 친구들 무리 역시 김지은과 비슷한 태도를 보여요. 수업시간에는 발표를 거의 하지 않고, 쉬는시간에 활발한 모습이죠.

지은이의 담임교사인 이윤정 교사는 지은이의 성격이 평소 쾌활한 편이나, 수업시간에 남들에게 돋보이는 행동은 지극히 꺼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은이와 친한 친구들 역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집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Jeanette: Hmm, I think I prefer third graders. Just because they have more eager to learn. I think 6th graders, are good as well as 3rd graders. But it is more difficult to motivate them.

연구자: Do you think what is the reason for this phenomena?

Jeanette: I think it is because they feel pressure to go to the middle school, and the subjects are more and difficult. Sometimes they read their friend's feeling.

Jeanette 교사는 고학년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동기 및 자신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로 축 처진 분위기 및 친구의 눈치보기 등을 꼽고 있다.

2) 본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조사자: 현승이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한번 발표해보라고 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니?

나현승: 우선 긴장이 되고, 대답을 못할까봐 좀 떨려요.

조사자: 대답을 못할까봐 떨리는 이유는 무엇이니?

나현승: 친구들이 비웃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괜히 영어를 못하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싫어요. 차라리 잘하는 친구만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저는 잘하지도 못하니까요.

조사자: 그렇다면 수업시간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편이니?

나현승: 아니요, 발표는 선생님께서 번호가 적힌 막대를 뽑으면 그 번호 아이가 일어나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하기도 해요.

나현승은 수업시간에 발표하기를 꺼리는 이유로 자신의 영어실력이 들쭉날쭉 같아서 그렇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발표를 골고루 하고자 발표 막대기를 사용하여 여러 학생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발표를 하기 싫으나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은 이 학생을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도록 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예슬: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활동들이 쉽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제게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도 지루하다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조사자: 그렇구나. 그래도 가끔은 영어수업 시간에 예술이가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 않니?

이예슬: 네. 저번에 원어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몰랐던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틀려도 나중에 배우면 되고, 어려운 게 주어지면 좀 떨리기도 하지만 긴장도 되고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예슬은 자신에게 주어진 불안한 상황을 학습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하여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적당한 불안감은 오히려 학습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박경희, 2012)와 맞닿은 부분이다.

조사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왜 갈수록 영어에 대해 정의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선유 교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학년 교실에서는 확실히 저학년 교실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축 쳐져있을 때가 많고 학생들이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에서 큰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 역시도 힘드네요. 교과서가 재미없는 건가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못 느끼겠어요.

조사자: 그렇다면 특히 수업시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나요?

김선유 교사: 아무래도 영어학습이 부진한 상태가 누적되다 보면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죠.

조사자: 그렇다면 그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선생님께서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나요?

김선유 교사: 수업시간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보니 수업의 수준을 학생들 수준의 중간 정도로 진행하는 편이고, 그러한 수업도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위하여 방과 후에 시간을 내서 지도하는 편
이에요. 그 때는 정말 쉬운 표현들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죠.
조사자: 그렇게 하고 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김선유 교사: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진도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수준의 격차는 웬만하면 좁혀지지 않는 같아요.

영어학습에 대하여 누적된 부진과 학습 의지 부족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감을 떨어뜨리고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차 상실하게 한다고 김선유 교사
는 말하고 있다. 개인별 집중 지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미 고학년이 되어서 벌어진 격차는 좁혀지기 힘들다는 것이 이 교사
의 판단이다.

3) 영어를 사용할 기회 부족

조사자: 교실 밖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때도 있니?
이정훈: 전혀 없어요. 한번도 사용해 볼 생각도 한 적도 없구요,
나현승: 저는 외국인 선생님한테 말 걸어본 적은 있는데, 그 밖에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이정훈과 나현승은 수업시간 이외에 영어를 전혀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 EFL 상황에서 영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기회로 활용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수업시간에 갖혀버린 지식으로 만들 가
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라.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높이는 방안

앞으로 영어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정의적 측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학생에게 흥미있는 소재의 사용, 직접적 활용의 기회 제공, 교사의 관심 확대, 언어 사용의 기회 확대, 교사 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흥미있는 소재의 사용

조사자: 예술이가 생각하기에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것 같니?

이예슬: 음.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팝송을 배우거나 그 나라의 생활모습에 대해서 배우거나 할 때는 좀 재미있어하는 것 같았어요. 시험을 좀 줄이고,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예슬은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영어수업시간에 표현을 단순 반복할 때 보다는 그 나라에 대해 배우고, 문화를 접하는 활동을 할 때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생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직접적 활용의 기회 제공

조사자: 하정아, 지금은 영어공부도 싫고 재미도 없다고 했는데, 만약 좀 더 영어시간이 좋아지고 재미가 있어지려면 영어시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박하정: 일단. 친구들이랑 많이 말하고 싶고, 재미있는 노래들도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어수업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박하정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지금은 비록 영어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친구들과 많이 말하는 기회 및 쉽고 재미있는 노래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영어수업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3) 교사의 관심 확대

김동욱: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랑만 주로 이야기 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시험을 못보거나 대답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불쌍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공평하게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동욱은 교사의 관심이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평소 영어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높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수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가 영어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4) 언어 사용의 기회 확대

김민서: 영어캠프 할 때는 영어를 많이 쓸 수 있어서 좋았는데, 수업시간에는 영어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 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미션 같은걸 주셔서 친구들이 다음 영어수업 시간까지 영어로 뭔가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김민서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어학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프로젝트학습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연구자는 판단했다.

5) 교사 간 커뮤니티 활성화

조사자: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께서 느낀 어려운 점에 대해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적이 있나요?

김선유 교사: 거의 그럴 기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끝나면 밀린 업무도 많고, 영어 전담교사는 저 혼자이기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자신을 다 내보여야 하는 일이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도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조사자: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교사들끼리 자유롭게 수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까요?

김선유 교사: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학교 현실상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김선유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교사 간 자유로운 수업 공유의 기회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발언하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수업 나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개인적으로 모든 수업을 혼자서 준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더 나은 수업을 만드는 데 여러 교사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 인식에 대한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측면은 긍정적이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 역시 영어를 배우는 이유를 모르거나 맹목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말하기 영역에서는 흥미가 높았으며, 쓰기 영역에서는 흥미도가 낮게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열심히 노력하면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역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절실하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대체로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수업에 대한 부진한 태도 누적, 또래집단이 만드는 분위기 등을 꼽았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대한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우선 성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많은 불안감과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드러났다. 또한 또래집단에 대한 부분도 크게 나왔다. 타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등의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부끄러워서 등으로 나타났다. 수업의 과정에 대한 흥미저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루한 전개, 반복학습 등에서 싫증을 느낀다고 대답한 학생이 상당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영어수업에 대한 정의적 태도는 대체적으

로는 긍정적이나, 상당수의 학생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쓰기 영역에서의 흥미도가 낮았고, 영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면담 진행 결과 학생은 그 이유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이름이 붙었을 때 대답을 못하면 창피할 것 같다는 응답을 했으며, 교사는 지속된 부진의 누적과 학생들에게서 보이는 또래집단의 분위기가 학생들의 정의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있음을 꼽았다.

2. 제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측면은 긍정적이었으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쓰기 영역에서는 흥미도가 낮게 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한 반복 쓰기연습이 아닌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쓰기교육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역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 방법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수업에 대한 부진한 태도 누적, 또래집단이 만드는 분위기 등이 영어의 정의적 태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을 했다. 따라서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영어수업의 소재를 고민해 보고, 꾸준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대한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원인은 우선 성적에 대한 과도한 압박, 또래집단이 만드는 분위기, 지루한 전개 및 반복학습 등으로 나와 수업 루틴이 고정되어 있는 영어수업 진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영어수업에서 다루는 발화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소재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평가를 지

양하고 평가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줄여 학생들이 평가를 위한 영어공부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이 영어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소재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영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법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학습에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교사 혼자 노력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수업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만큼, 이러한 학생들을 칭찬, 격려하고 그들이 영어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서 해낼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여 영어수업이 학생의 흥미와 자신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방법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기에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로 나온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이 부정적으로 나온 원인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적용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차적인 연구만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적 측면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시간 차를 두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류동수 (2005). 초등학교 학년별 영어 흥미도의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 논문.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성일호 (1995).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들이 영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 19(2), 343-368.
- 박순용, 홍진의 (2008). 초등영어 수업 유형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Vol.39. No.2. 137-176.
- 이유진 (2014).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변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성은 (2013). 초등영어수업 인식 변화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경희 (2012). 초등학생의 학년변화에 따른 영어학습 인식 변화. 석사학위 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숙 (2013).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동기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6. No.1. 185-210.
- 김계수 (2008). Excel 2007을 이용한 통계분석. 한나래아카데미
- 박희선 (2012). 수업동영상을 통한 자기수업분석 경험. 석사학위 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주 (1999).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정의적 태도, 수학적 문제해결력, 추론 능력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하우동설(1995).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익상, 고경희 (2012). Korean EFL Learner's Anxiety in the Elementary English Classroom. Vol.28. No.2. 219-240.
- Lightbown, P. M. & Spada, N. (2012). *How languages are learn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eedman, J. L., et al (1981). *Social psychology*.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A B S T R A C T *

Causes of Elementary 6 Graders' Negative Affec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Kang, Yeon Jeong

Major in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Iksang

This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English learners' negative attitude which is more likely to exist among olde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elementary students' attitudes including interest and confidence change negatively as they move up along the grade. This phenomena seriously endangers students to lose their high priority to the attitude goals such as interest and confidence.

The study adop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order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August, 2016.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6th graders'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and to further clarify the factors which cause the negative attitude. The study firstly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6th graders' learning attitude. Interviewee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its results. Then in-depth interviews with 15 students were carried out and several cause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study surveyed 6th grade English teachers, whose professional opinion is important to verify causes of their attitude. They als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which can give emphasis to the attitude goals.

The results show that various caus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tudents' negative attitude towards learning English. The main causes to lower their interest include incorrect application of curriculum, excessive stress, irrelevant contents to the real life, and boring progress of lessons. On the other hand, the main causes to undermine their confidence are lack of opportunities to use English in the real situation, anxiety about their ability, and self-consciousness of their English skills. Interestingly enough, some students feel their score is low in spite of their high performance and others hate to receive peers' attention during the English class.

Based on the results and findings, the study suggests a few ways to increase elementary students' interest and confidence in English which can be applied to the teaching of English more effectively. Firstly, it is necessary to devise a teaching method to increase higher graders' confidence. The method should be learning-centered as well as learner-centered. Secondly, teachers have to choose and adapt teaching materials to let the students participate in the activity with interest. In order to develop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it is advised that

teachers have a meeting or workshop to share their ideas and experience. Thirdly and finally, a nation-wide or country-wide standardized examination should be avoided because the examination often raises students' pressure, only to fail to achieve attitude goals.